

새 아침을 열며

사홍서원이 바로 불교의 초심이다

우리 불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펴고 있는가? 그런 불자로 살고 있는가? 지난 해 불교계를 돌아보면 참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수많은 내용, 추문 등으로 얼룩져 과연 불교의 본 모습, 불자의 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된다. 그래서 서로를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초심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출생과 같이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초심이 조금 다른 모습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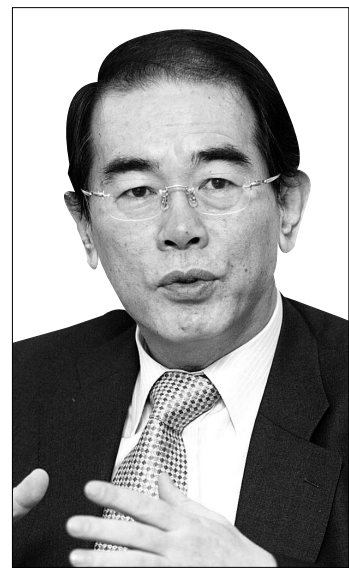
어떤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위해 우리는 충분히 숙고해야 하며, 여러 조건들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이루어져 일단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을 되돌릴 길은 없게 된다. 우리의 선택에서 배제된 길은 '걸어보지 못한 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외길이라도 빨리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신중히 선택한 길이라면 그런 길일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지?" "이만하면 됐으니까 적당히 섳길로 빠질까?"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 수 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 타협을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결단을 내릴 때의 초심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왜 내가 이러한 길을

새로 태어날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태교를 하고 음식을 가리고 등등, 훌륭한 아이, 머리도 좋고 심성도 맑고 몸도 튼튼한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그러다가 정작 출산이 코 앞에 다가오면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 밖에 없다. 그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기만을 바라게 된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차차 욕심이 불는다.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늘기 마련이다.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왜 이걸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며 사랑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마음이라고 강변한다.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순수한 초심의 사랑, 그것은 아이를 낳기 직전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순수한 바람을 잃지 않을 때, 부모의 사랑이 빛을 내고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 초심을 잃게 되면 사랑은 오염되고



건기로 했던가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회나, 섳길로 빠지려는 방향들이 초심의 서원을 지행하지 못하는 게으름이나, 섳된 욕망서 오는 변명이 아닌가를 엄한 눈으로 살펴야 한다. 조금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하려는 마음, 안일에 빠져 섳된 길로 가려는 탐욕서 오는 회나 방향보다는 바른 마음에서 세운 서원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바른 마음에서 세운 서원과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내린 결단 그것이 바로 초심이다. 그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전을 읽지 않고, 수행방편 하나 지니지 않는 이름만 불자인지 돌아보자 ”

서도 초심이다. 또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큰 마음을 내어 너무 지켜나가기 힘든 큰 서원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그 서원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시 말해서 초심의 초심에 해당하는 기본을 살펴야 한다. 그것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스님이 출가할 때 부귀영화를 누리려 출가했을까? 제대로 스님이 된 분이려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절실한 마음이 그 출가의 동기에 있으리라.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불자가 된 까닭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그 초심에 부귀영화를 꿈꾸는 마음이 자리했다면 그 초심 자체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행복과 관련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불자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 궁극적인 행복, 깨달음을 통한 완성의 길이라는 지고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부처님을 향한 서원에는 보다 질 높은 삶을 향한 향상의 의지가 있다. 이 향상을 다시 찾는 일, 이것이 바로 초심의 확인이요, 초심에 되돌아감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스님과 불자가 될 때의 마음, 그것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여건에 핑계를 대지 말자. 그저 복을 달라고 부처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행태에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자. 현실적인 여건서 초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만 돌아보자. 사홍서원이라는 큰 서원, 그것이 너무도 크고 아득해 현실에

구체화하는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가까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장의 번뇌를 다스리지 않고, 일년에 경전 한권도 읽지 않고, 불자로서의 수행방편 하나도 지니지 않고 그럭저럭 불자라는 이름만 불이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초심이 잘못되었을 경우라도 있지만, 초심은 대체로 순수한 시작이기에 그것이 잘못일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하나 뿐이다. 출가자나 재가자나 지금 바로 여기서 '초심'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뿐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초심은 무엇이며, 불자의 초심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말할 것 없다. 사홍서원이 바로 불교의 초심인 것이다.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요 불자의 초심이다. 이제 우리는 그 불자로서의 발심을 확인하고, 그 것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초심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초심이 중요하다. 그것은 위에서 아이의 출산을 빗대어 말한 것과 같다. 많은 바람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바람, 그것이 초심 가운데

社說

광복 70년, 한국불교의 역할

올해 2015년은 을미년이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1945년에 일본에게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 광복이 된지 70년이 된다. 경사스런 해이다.

우리 한국불교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역사와 지대한 동고동락을 했다. 격동기에는 의지처가 되기도 했으며, 사회가 암울할 때는 함께 아파했다. 부처님 가르침처럼 중생을 떠난 불교는 있을 수 없다. 중생심을 갖고 그들 속에서 우리 한국불교는 항상 숨쉬어왔다. 앞으로도 그래야 하며 그럴 것이라 믿는다. 한국 불교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국들을 돌아켜보면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두운 뉴스도 많았다. 특히 지난 해가 그랬다. 한국불교는 스님들의 음주와 도박 등의 범계 행위로 끊임없이 사회면 향을 장식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 20년 후의 불교가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적

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불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물론 큰 성과보다는 단순한 이벤트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도 자정을 위해서, 이 사회에 큰 의지처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급변하는 IT와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 불교도 변하기 않으면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없다.

이제는 우리 불교가 대중속으로 나와 새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한국 불교가 우리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에 발맞춰 우리 불교도 이에 맞는 포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올해와 같이 의미가 큰 해 한국불교가 다시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협력적 '공유사회' 불교가 선도하자

'공유 사회'는 사실 한국에서는 생경한 개념이다. 최근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사회>가 소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유 사회의 기본은 자원이 아닌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는 부의 편중,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다. 한국사회도 벌써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돈에 의존하는 삶'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 인간의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람의 협력, 협동관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긴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미래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결국 인간들이 협력과 공유를 통해 삶을 영위하겠다는 공유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과제이다.

공유 사회라는 개념과 불교 사상은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인드라망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의상대사의 법성계, 발우공양 의식에 담긴 연기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와 협력

해 살아가는 공유 사회의 원리와 비슷하다. 불교가 공유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복원'과 '생태 발자국 줄이기'다. 애초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지금도 대중 생활을 통한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공동체 운동에 있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불교계인 만큼 몇몇 사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생태 발자국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공유와 나눔, 돌봄과 협동은 아주 중요한 미래의 가치이자 공동체적 가치이다. 수많은 천지 자연과 중생의 은혜를 입고 있는 나는, 그들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을 사는 것이 돼야 한다. '자리이타'는 불교의 근본 가치이다.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돌려 주고 쓰이도록 해야 한다.

공유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다.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재) 한국불교조계종 신년 하례 법회



(재)한국불교조계종 신년 하례 법회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고자 원로대덕스님, 본 종단의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께 서면으로 공지하오니 부디 參席하시어 法席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보현

사서실장 청묵

- 종회의장 용주 포교원장 지웅 교육원장 석천 호계위원장 대화
호법국장 경오 사무총장 청호 비구니회장 혜양 총무부장 대명
경기총무원장 성문 부산총무원장 해강 대구총무원장 효상
강원총무원장 혜성 경남총무원장 청강

(재) 한국불교조계종 신년하례 법회

- 일시: 불기 2559년 을미년 1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
문의: 총무원 (불광사) 010-8524-8080

재단법인 한국불교 중흥교원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입종안내
1 입종서류
사찰등록신청서·주민등록등본 1통·반명함판 사진 3장·이력서
2 발급증명서
승려증·사찰등록증·주지 임명장
전화: 010-8524-8080
(재)한국불교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본종단과의 소중한 법원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도로서 널리 불법을 호풍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